

# IPCC 신규보고서와 기후변화 대응이 나아가야 할 길



홍제우 부연구위원  
한국환경연구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이하 IPCC)의 평가보고서는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기후변화 정보로 받아들여진다. 지난 2월 IPCC는 제55차 총회에서 참여국의 만장일치로 기후변화 영향, 적응, 취약성을 다루는 제2실무그룹(WG2)의 평가보고서를 승인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독일에서 개최되기로 예정되어있던 총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무려 2주간 논의가 지속되었다. 논의의 막바지 무렵엔 우크라이나의 전쟁 소식이 들려왔고, 끝까지 총회에 참석한 우크라이나 대표단에 모두가 위로의 말을 전하며 따뜻하게 총회는 막을 내렸다(그림1). 따뜻했던 총회의 마지막과는 달리 2주간의 논의는 매우 치열했다. 선진국의 과거부터 오랫동안의 개발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개도국의 입장과, 더 심각한 기후위험이 오기 전에 기후변화 대응에 개도국의 빠른 동참을 요구하는 선진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기후변화의 현실은 어떤 상황일까? 우리의 대응은 적절한 상황인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어디일까?



그림1. IPCC 제55차 총회의 마지막 순간(출처: KEI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승인되었던, IPCC 1.5도 특별보고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전 지구 온난화 수준이 1.5도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이, 그것을 초과하는 것보다 지구의 지속가능성 유지에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다만, 1.5도 온난화 수준의 억제를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뿐만 아니라 메테인 등 모든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함께 줄여야 함을 보였다. 2021년의 IPCC 제1실무그룹 평가보고서는 현재의 온난화 수준이 이미 약 1.1℃ 수준에 도달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더라도 20년 이내 가까운 미래에 1.5℃ 온난화 수준에 도달할 확률이 높다는 과학적 근거를 공개했다. 기후변화로 사람과 자연이 앞으로 겪어야 할 피해는 점점 더 커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새로운 제2실무그룹 평가보고서는 보고서의 처음에 오는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문에 중대한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다. ‘과학적 증거들은 명확하다. 기후변화는 인류와 지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이 조금이라도 더 늦어지면, 우리가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확률이 급격히 낮아질 것이다.’ (출처: IPCC AR6 WG2 SPM.D.5.3을 번역하여 옮김)

기후변화는 서서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IPCC 평가보고서는 이를 느리게 발현하는 과정 (slow-onset process)이라 하는데, 온난화는 시원한 곳에서 주로 살아가는 생물종에겐 그 서식지를 빼앗아 멸종위기로 내몬다. 기상청에서 관측한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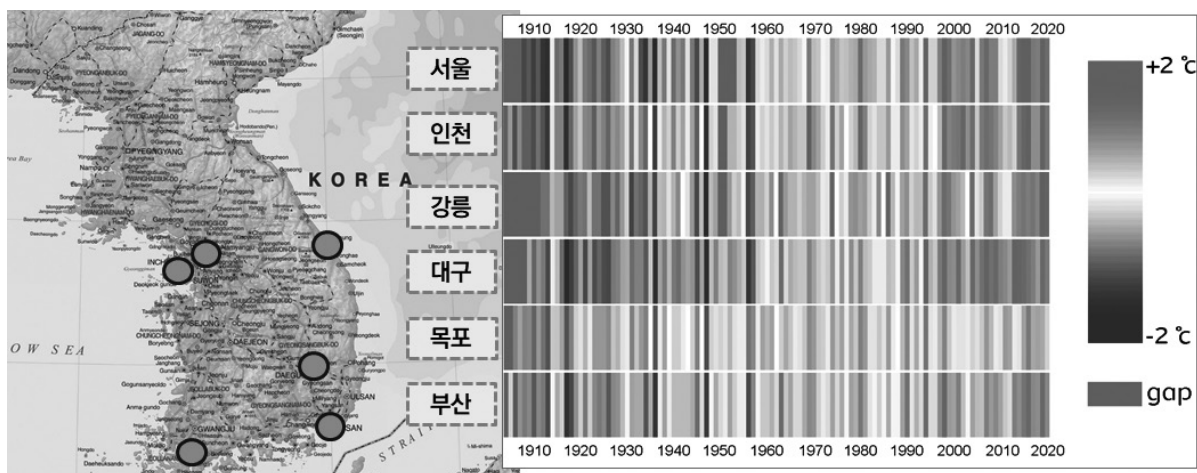


그림2. 6개 기상관측소의 100년간의 연평균기온 변화(출처: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년간의 기상관측 기록을 살펴보면(그림2), 모든 관측소에서 지난 100여년간 2도이상 따뜻해진 온난화 신호를 볼 수 있다. 온난화는 해양에서도 일어난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온도가 따뜻해지고, 해수의 산성화가 심화되어, 바다의 생태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시에 기후변화는 극한 현상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키고 있다. IPCC는 드물게 발생하는 큰 영향이 있는 현상(low-likelihood high-impact outcome)이라 표현한다. 평균온도 1℃ 상승이 뭐가 그리 큰 문제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기후의 분포가 더 넓어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과거에는 아주 드물게 발생했던 현상이, 이제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고, 과거에 없었던 규모의 현상마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9년에 극심한 폭염을 겪었던 우리나라는 2020년에는 남부지

방에 500년 규모의 호우로 홍수가 발생해 큰 피해가 발생했었다.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는 잔인하게도 취약한 계층과 취약한 지역에 더 큰 피해로 나타난다. 잘사는 사람 잘사는 동네는 극한현상에도 비교적 피해가 적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작년 8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올 3월부터 시행되었다. 기후변화를 위기로 인식하고, 그 대응 정책을 법으로 정의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가 - 지자체 - 공공기관에 걸쳐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취약계층을 적극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그와 더불어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시작할 땐,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국가의 움직임이 실효성 있게 계획되고, 민간기업과 국민들에

제도 확산되기 위해 많은 정부부처와 연구기관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없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IPCC 평가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응 노력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오적응(maladaptation)을 경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오적응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들이 거버넌스 과정부터 참여를 하는 것이다. 국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과정이 점차 기후정책의 영역에서 확산되어 갈 것이다. 많은 국민께서 기후변화 대응에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하고, 우수한 사례를 선정하는데

더 많은 참여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IPCC 제2실무그룹의 평가보고서 표지 그림은 ‘빌려온 행성(A Barrowed Planet)’이라는 제목을 가졌다(그림 3). 우리의 선조로부터 물려받았고, 또 우리의 미래세대로부터 빌려쓰고 있는 지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미래세대에게 살만한 세상을 물려주려면, 지금 우리세대의 기후변화 대응이 절실하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기후변화 완화의 노력, ‘탄소중립 행동’은 물론이고, 그와 동시에 극심해질 기후변화 영향에 대비하는 ‘기후변화 적응’의 노력도 동시에 필요함을 기억해주셨으면 좋겠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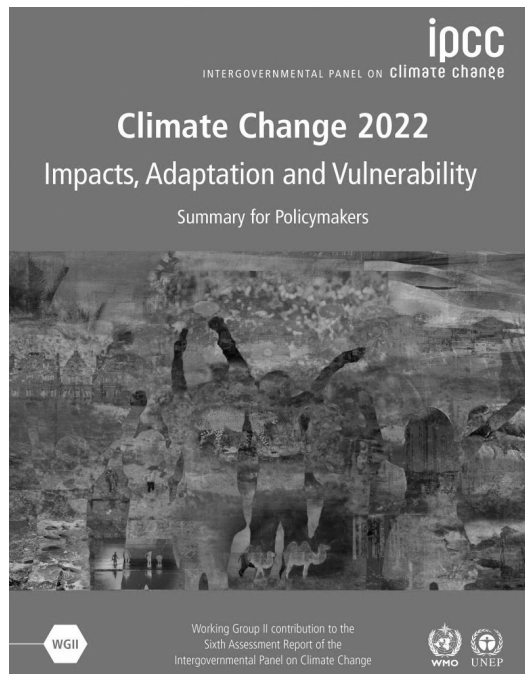


그림3. IPCC AR6 WG2 평가보고서의 표지(출처: IPCC 홈페이지)